카디안 디딤글로벌리더스40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2026년 01월말 기준

투자목적 및 전략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 전세계 기업의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주식증권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40% 이하, 국내 국공채를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채권증권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채권모투자신탁 주요 투자전략: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공채 등에 투자하여 신용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이자수익과 함께 투자한 채권의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을 추구합니다. 국내외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비교지수 대비 펀드의 목표듀레이션을 결정한 후, 국채와 공사채 및 회사채 또는 단기채권과 장기채권 간의 상대가치를 분석하여 섹터 및 수익율 곡선상 자산배분 비율을 결정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선별적으로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의 확보를 추구합니다.

- 주식모투자신탁 주요 투자전략: 시가총액 약 2조원 이상의 전세계 기업 가운데 영업이익 및 현금흐름성장성이 돋보이는 기업의 주식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예측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매출/이익/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종목발굴을 위해 애널리스트들의 철저하고 세밀한 분석자료에 기반을 두는 상향식(Bottom-up)투자를 원칙으로 합니다.

- 금융시장 상황, 투자자산군 별 리스크 및 각 집합투자재산의 가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자
산배분비중을 조절함으로써 집합투자재산의 위험관리 및 장기 가치 상승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 전략을 실시합니다.

펀드내역

펀드규모(NAV) 247억 원

-채권모투자신탁 1,062억 원

-주식모투자신탁 841억 원

펀드유형 채권혼합형, 모자형, 종류형
- 채권모투자신탁 편입비: 60% 이상
- 주식모투자신탁 편입비: 40% 이하

설정일

(운용펀드 : 2007년 05월 02일)

- 클래스 C-P(퇴직연금) : 2015년 06월 29일
- 클래스 C-P(퇴직연금)E : 2017년 08월 23일
- 클래스 C-P2(연금저축)E : 2024년 09월 27일

벤치마크 MSCI AC World Local (T-1) 35% + 매경BP종합(국공채) 40% + 매경BP종합(A-이상회사채 2~3년) 20% + KAP Call 5%

신탁업자 HSBC(수탁사)

월 중 환헤지 비중 **90.4%**

선물 또는 선도 계약의 평가액(KRW) / 외화자산의 평가액(KRW)

환매대금 지급일

구분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17시 이전	4영업일	7영업일
17시 경과후	5영업일	8영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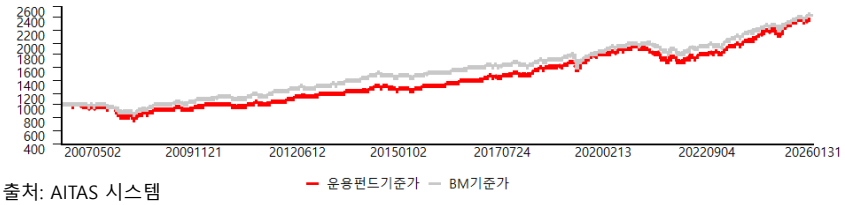
투자위험등급 4등급(보통위험)

1	2	3	**4**	5	6

펀드 운용 성과

	누적수익률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설정이후
운용펀드	1.31%	0.24%	2.58%	6.93%	22.24%	33.77%	28.69%	137.29%
클래스 C-P(퇴직연금)	1.21%	-0.06%	1.97%	5.66%	19.37%	29.09%	21.24%	62.27%
클래스 C-P(퇴직연금)E	1.24%	0.02%	2.14%	6.02%	20.17%	30.40%	23.31%	59.82%
클래스 C-P2(연금저축)E	1.24%	0.01%	2.12%	5.97%	-	-	-	11.12%
벤치마크	0.60%	0.74%	3.38%	6.63%	17.87%	27.60%	27.69%	143.32%

- 운용펀드 수익률은 보수 차감 전 수치입니다.
- 설정 이후 벤치마크 수익률은 운용펀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상기 투자실적은 과거 실적을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실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클래스별 설정일이 달라 설정 이후 수익률은 클래스별로 상이하며, 보수 수준 차이로 인해 클래스별 성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전 수익률)
- 최초설정일 이후 전액환매가 된 클래스의 경우 기간별 누적수익률은 재설정되는 날로부터 재산정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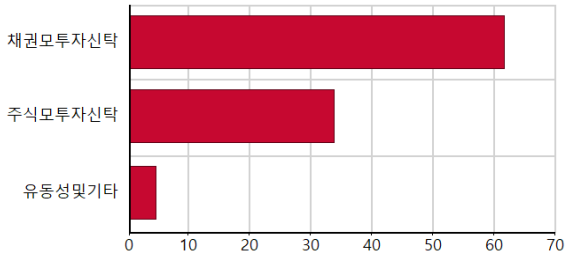


출처: AITAS 시스템

자산 구성 현황 (2026년 01월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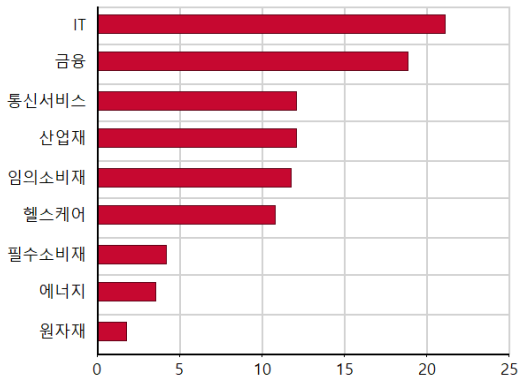
<전체>

순위	자산명	비중(%)
1	채권모투자신탁	61.7
2	주식모투자신탁	33.9
3	유동성및기타	4.4



<주식 업종별>- 주식모투자신탁 편입 비중

순위	자산명	비중(%)
1	IT	21.2
2	금융	19.0
3	통신서비스	12.1
4	산업재	12.1
5	임의소비재	11.9
6	헬스케어	10.9
7	필수소비재	4.2
8	에너지	3.6
9	원자재	1.9



상위 보유 종목

종목명(1월말 기준, 주식모투자신탁 주식비중)	비중(%)
Tokyo Electron Ltd	5.5
L3Harris Technologies Inc	5.2
NVIDIA Corp	5.1
Tencent Holdings Ltd	4.5
Amazon.com Inc	4.3

종목명(1월말 기준, 채권모투자신탁 채권비중)	비중(%)
국고02250-2806(25-4)	13.9
롯데카드539-4	7.6
국고02250-2709(25-6)	7.5
국고02500-3009(25-8)	6.4
국고03750-3312(13	4.8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 · 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KARDIAN
카 디 안 자 산 운 용

판매회사
내부직원용

카디안 디딤글로벌리더스40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2026년 01월말 기준

보수 및 수수료

보수(순자산총액 기준)

- 클래스 C-P(퇴직연금) : 총 연 1.2% (판매 0.69%)
- 클래스 C-P(퇴직연금)E : 총 연 0.86% (판매 0.35%)
- 클래스 C-P2(연금저축)E : 총 연 0.94% (판매 0.43%)

(공통사항)

운용 0.45%, 신탁 0.0475%, 사무관리0.0125%

선취수수료

- 클래스 C-P, C-PE, C-P2E: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시장동향 및 운용현황

1월 글로벌 주식시장은 거시경제 및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높은 변동성을 보였으나, 전반적으로는 완만한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월중 관세 관련 이슈와 고용지표 둔화 우려가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며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S&P 500 지수는 경기민감주 및 중소형주 중심의 순환매가 나타났으나, 대형 기술주 및 성장주는 밸류에이션 부담과 통화정책 기대 조정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유럽 주식시장은 인플레이션 둔화와 정책 기조의 연속성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상승세를 기록하였습니다. 금융·산업재·방어주 중심의 고른 상승과 함께 자금 유입이 확대되며 투자심리가 개선되었습니다. 아시아 시장은 국가별 차별화가 나타났습니다. 일본과 홍콩 등 선진 아시아 시장은 강세를 보였으며, 달러 약세와 글로벌 자금 재배분 영향으로 신흥국 시장도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모펀드에서는 산업재, IT, 임의소비재 업종에서의 긍정적인 종목선택이 펀드 성과에 기여했으며, 이는 헬스케어와 금융 업종에서의 부정적인 종목선택 효과로 일부 상쇄되었습니다. 지리적 관점에서는 일본, 캐나다, 페루 시장에 대한 배분이 펀드 성과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반면, 네덜란드, 중국, 홍콩 시장에 대한 배분은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월초 채권시장은 대외 금리 안정과 함께 연초 기관들의 자금 집행에 의한 매수세 유입으로 하락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1월 금통위 만장일치 동결 결정 및 성명문 내 '인하 가능성 검토' 문구가 삭제됨에 따라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을 되돌리는 과정에서 인상 가능성까지 재차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국고채 금리는 전 구간에서 급등했습니다. 주중 환율이 재차 1,400원대 중후반까지 반등한 점도 약세 압력을 가중시켰습니다. 이후 코스피 지수의 5,000pt 선 돌파 등 대내 위험자산 선호심리와 다카이치 총리의 공격적인 재정 확장을 경계한 일본 채권시장 약세, 이 대통령의 추경 가능성 언급 등에 의해 금리 상승 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월말 국민연금의 국내 투자 확대 소식과 대통령의 적자 국채 발행 제한 발언 등은 약세 폭을 제약 시키기도 했으나, 전반적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공급 부담과 대외 금리 상승 영향이 시장 약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국고채 3년 금리는 전월 대비 19.1bp 상승한 3.142%, 국고채 10년 금리는 전월 대비 22.6bp 상승한 3.611%로 마감했습니다.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

글로벌 주식시장은 연중 상승 이후 조정 국면에 진입하며 메가캡 기술주 중심으로 밸류에이션 재점검과 통화완화 기대 조정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기업 이익은 견조하고 인플레이션은 점진적으로 둔화되고 있으며, 경기순환주와 중소형주, 미국 외 지역으로 시장의 폭이 확대되는 등 기초 여건은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펀드에서는 이를 혁신 주도 사이클 내에서의 건전한 조정으로 판단합니다. 미국의 OBBB 정책과 규제 완화는 소비 및 AI·첨단 산업 투자를 지지하고 있으며, 독일과 일본의 재정 부양 또한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누적 금리 인하와 글로벌 통화정책의 안정적 기조는 금융 여건을 개선하며 위험자산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인플레이션의 고착화 가능성, 지정학적 불확실성, 재정 건전성 이슈, 그리고 특정 섹터에 대한 시장 집중도는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펀드에서는 고평가된 일부 메가캡 기술주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은행, 산업재, 경기순환주 및 헬스케어 등으로 재배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구조적 성장 동력으로서 AI에 대한 확신은 유지하되, 밸류에이션 관리와 분산, 리스크 통제를 병행하는 전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시장 환경 속에서도 펀드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영역에서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으며, 변화에 유연하고 민첩하게 대응하여 미래 리더십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 운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금리 레벨은 기준금리 대비 크게 높은 수준이나, 금리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환율 안정 및 지표 둔화 등 인상 우려를 낮출 수 있는 모멘텀이 필요합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연내 기준금리 동결 전망이 우세함에 따라 채권 금리의 하락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 투자 수요 증가세와 원/달러 환율 상승 기대심리는 환율 안정화를 제약하는 요인입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세 둔화 역시 단시일 내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추가적인 공급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경기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따른 IT 중심의 수출 호조에 강한 내수 회복세가 더해질 경우 경제성장률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1,400원대 중후반의 고환율 지속은 인플레이션 전망치 상향 요인입니다. 만약 2월 또는 5월 금통위에서 성장 및 물가 전망치가 상향될 경우, 금리 인상 우려가 높아지며 금리 상승 기울기가 가팔라질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다만 성장의 흐름이 특정 업종에 편중됨에 따라 성장의 양극화가 불가피한 현상은 금리 상방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금통위 이후 취약해진 투자 심리를 고려할 때, 시장은 경기지표와 금융안정 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수시로 프라이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외적으로는 차기 연준 의장 지명으로 인한 연준의 통화정책 기대 조정, 일본의 확대재정 기조 및 엔화 흐름 등이 금리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급 측면에서는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 속 추경 논의와 생산적 금융기반 정책이 채권시장의 부담으로 잔존하며, WGBI 유입 기대 효과를 상쇄시켜 상방 경계감을 높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반영한 국고채 3년 금리는 3.00~3.30%, 10년 금리는 3.50~3.80%의 레인지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크레딧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동결 기조 속 높은 절대금리 레벨에 크레딧 캐리 매력이 유효한 환경입니다. 크레딧 이벤트 발생 가능성이 제한적인 가운데 우호적인 발행시장 여건은 스프레드 축소 요인입니다. 다만, 2월 일본 총선 및 금통위 등 주요 대내외 이벤트를 앞둔 국고채 금리의 높은 변동성은 크레딧 강세를 제약하는 요인입니다. 금리 변동성 부담 속 섹터별 차별화가 나타나며, 공사채와 은행채는 약보합, 상대적으로 수요가 뒷받침되는 회사채와 여전채는 강보합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향후 월중 금리 인상 전환에 대한 경계감이 강화될 경우, 금리 상방 리스크 부각에 따른 채권형 펀드 및 MMF로의 자금 유입 둔화 우려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요 기반이 지속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할 경우 크레딧 스프레드는 전반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상존하며, 펀더멘털에 따른 업종별 차별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수/국고 3년 스프레드는 25~35bp, 은행/국고 3년 스프레드는 26~36bp, 회사AA-/국고 3년 스프레드는 45~53bp, 여전AA-/국고 3년 스프레드는 50~58bp 수준을 전망합니다.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 · 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